

# 이렇게 들었다

## 배아복제

### "수태되는 순간 생명체"

"먼저 수태하게 되면 점차 연유가 엉키듯이 되고 드디어 우무버섯 같아지고 뒤에는 형상을 이룬다. 머리와 목이 먼저 생겨 차츰 손과 발이 생기고 온갖 뼈마디가 각각 생기며 터럭과 손톱, 발톱, 이빨이 형성된다. 만일 어머니가 온갖 음식과 갖가지 음식과 요리를 먹을 때 그 영향으로 살아 나가기 태를 받는 목숨의 근본이니라. 그래서 형체는 이루어지고 모든 감각기관을 완전히 갖추어 태어나게 된다" <중일아함경>

생명윤리기본법 시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22일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생명공학계는 배아복제가 21세기 가장 중요한 치료법으로 난치병 치료를 위한 규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종교계는 인간 배아도 엄연한 생명체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에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부처님은 인간이 수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체임을 밝혔다. 부처님께서 난타에게 설한 <임보태경>에 의하면, 여인이 월경을 하는 것과 생명이 두발이나 네발 다발 무발 등 어떤 생명체로 입태하는 것 그리고 수태한 후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7일 단위로 변화하는 모양과 의식을 설명하고 있다. 또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 의하면 태어난 인간으로서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낙태와 유산같은 행위도 말미암아 사람들이 병이 많고 제명대로 살지 못하는 원인이니"고 밝히고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업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부모를 죽인 죄이고 그 다음이 태아를 죽인 죄"라고 설했다. 부처님께서 불자오제에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계행을 첫째로 강조하신 것도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인간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 갤럽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해 낙태건수는 150만건, 하루 4000건, 20초당 1명이 죽어간다. 세계 제2위의 낙태율이다.

현대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패락종조와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들을 위해 생명의 존엄성까지도 무참히 짓밟는 만행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다. 이런 습에 스펀더 인간이 성 윤리와 가정의 윤리도 짓밟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낙태의 원인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치료를 위해 인공배아를 한다는 것은 더 많은 살생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뿐 아니라 미물까지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죄업의 결과는 윤회의 현신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배아가 명백히 한 생명의 모습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필요에 의해 죄의식 없이 절단하거나 필요한 장기만 적출한 뒤 버려 버리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는 논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김원우기자

# 사형제 폐지해야 할 여러 이유

## 불자 세상보기

20세기 말에 이르러서 인류의 최대 화두는 인권이라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과 함께 인류의 생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많은 진전을 가져왔고, 공산독재 정권이 급격히 붕괴되고 그에 따른 인권 신장이 그 어느 때 보다는 개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선진제국들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앞다투어 법제화하기에 이르렀으며, 세계 130여개 국가가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인간 생명의 존엄을 선언한 상태이다.

사형이란 죄를 지은 자에 대한 단죄의 방법인 하나, 더러는 이념과 사

상의 기준에 따른 피차못할 행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단죄를 목적으로 한 방법이 또 다른 죄를 짓는 행위도 될 수 있다.

사형 존치론자들은 이 제도가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여 흉악한 범죄를 억제(抑止)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동일한 흉악범죄에 의한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폐지론자들은 인간의 생명은 국가가 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이것을 종식시킬 권리가 없으며, 사형제도가 종신형제보다 실제적으로 더 나은 범죄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

## 생명존중 어긋나

## 폐지 세계적 추세

## "참회와 용서통해 반성하는 삶으로"

는 주장은 입증되지 못한 가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즉, 오랜 가능성이 있는 법의 기준에 맞추어 인간의 생명을 단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문명사에 있어서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인권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법장스님

수덕사 주지  
생명나눔 실천회 이사장

불교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오역죄(五逆罪)를 범해도 처벌할 참회로써 용서받을 수 있다. 비록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사회 실정법의 고도(敎導) 역시 같은 이념이다.

하루빨리 이 땅에서도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참회와 용서를 통한 반성과 화해로써 맺힌 것을 풀고, 동체대비 사상에 입각한 불국정도가 구현되기를 고대한다.

히 벗어던져야 할 낡은 제도이다. 인간의 죄는 종교적, 심리적으로는 물론 세속적으로도 참회와 용서를 통해 반성하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처단하는 것은 우심리를 거스르는 반역이다.

# 열린마당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 세미나 창조인가 진화인가

### ■ 생명창조의 과학적 증거

### "모든 생명체엔 DNA 설계도"

김명현 <명지대 겸임교수>



다윈 이후 약 1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화이론을 밝혀줄 만한 뚜렷한 과학적 증거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이 무언가 다른 형태의 동물에서 점점 변화해 오고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 진화론이다. 한 가지 종이 다른 종에서 진화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분명히 중간 단계 생명체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야기 않을까? 그러나 그 반대로 존재했었다는 중간 단계 생명체들에 대한 화석이 그 동안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진화론을 주장하던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이론은 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이다.

진화이론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창조를 믿는다는 것 역시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가장 분명한 과학적 증거는 다른 어떤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대학건물을 예로 들어보자. 건물이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은 그 건물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짓겠다는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에 따라 건물을 지을 것이다.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설계자가 있다는 말이다.

생명이 마찬가지다. 모든 생명체에는 반드시 설계도가 있다. 바로 우리가 DNA 구조라고 부르는 설계도다. 이 말은 누군가 생명의 설계도를 개발하고 기록했다는 말이다. 생명체마다 설계도가 들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과학적 사고로 분석하고 정리해 보면 인간이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설계된) 존재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설계도를 이루는 정보가 DNA에 어떤 원리로 기록되어있는지에 대한 원리적 이해와 정보의 집적도가 지적설계능력에 비례한다는 경험적 인식을 갖는 것은 창조자의 존재에 대한 자연과학적 인식의 중요한 뼈대가 될 것이다.

### ■ 생물진화의 유전학적 배경

### "진화 방향 인위적 유도 가능"

추종길 <중양대 생물학과 교수>



생물진화에 대한 연구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다윈이다. 다윈은 새로운 종은 이전에 존재하던 종의 생물학적 변화에 의해 새로 생성되며 모든 생물종은 하나의 공통된 조상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생물학 각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멘델의 유전법칙이 완성되어지면서 유전자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급속도로 발달되어 왔으며 라마르크와 다윈의 진화설을 멘델이론을 기초로 현대적 진화이론으로 제시하는 신진화론자의 연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분자 생물학의 이론과 방법이 날로 발전됨에 따라 생물 집단의 변이 보유기구에 대한 연구에도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었다. 즉 분자 생물학의 발달에 의해 유전자의 구조가 밝혀지고 나아가 유전자 산물인 단백질과의 관계가 분자 수준에서 규명되어졌다. 이런 연구들의 결과 과거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진화의 기구와 종내 변이 연구 분야에 있어서 중심 가설로 되어온 네오다윈주의를 주장하던 학자들의 자연도태설을 재고해야 한다는 일련의 연구 그룹이 형성되게 되었다. 소위 분자 진화 증설설은 최근 분자 유전학의 새로운 관찰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1968년에 새로운 생물 진화의 한 가설로 제시하기에 이르렀고 오늘날 전 세계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유전정보의 서열의 체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초파리 등 생명현상 연구에 이용되는 모델 생물 종의 유전정보 서열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인간 유전체에 대한 연구도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분자생물학과 유전공학의 기술은 현재까지 밝혀져 있는 유전자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새로운 체계의 유전암호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인위적인 진화의 방향을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게 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 ■ 연기론으로 본 진화론과 창조론

### "적자생존 아닌 공생과 화합"

이종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은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인도사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브라만을 창조신으로 생각한 비라문교와 정통 비라문교를 부정하고 나타난 자유사상가의 대립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대립에 대해 부처님은 이를 견해가 모두 인간의 윤리적 실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다름 바 없다고 비판했다. 부처님은 중도 즉 연기법에 의지할 때 윤리적 실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기독교의 창조론과 자연과학의 진화론은 주장만 서로 달리하지만 인과론적으로 같은 기반 위에 서 있다. 부처님은 창조론과 진화론이 직선적 일방적 인과론에 의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연기설이라는 새로운 인과론을 제시했다. 부처님의 연기설은 사물의 인과관계를 직선적 일방적 관계로 보지 않고 상호관계로 본다. 이것과 저것은 상호의존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이 저것의 존재원인이 아니다. 이러한 연기설은 현대의 시스템 이론이나 진화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도 일맥상통한다.

시스템 이론에 의하면 모든 생물은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박테리아의 혼합물이다. 진화의 원리는 적자생존의 경쟁이 아니라 공생의 화합이라는 것이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생명이 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파헤쳐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망각한 일이다.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는 명사적 의미의 생명이 아니다. 오히려 생명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사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시스템 이론은 설명하고 있다.

시스템 이론이 과학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과학적 사고와 종교적 사유가 대립하지 않고 상호 보충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인과를 상호관계로 본다면 과학과 인문학의 모든 모순 대립은 종식될 수 있다.

# 2001년 대원불교대학 후학기(後學期) 입학안내



대원불교대학 전경



▶ 대중불교 운동의 실천



▶ 넉넉한 교육환경



▶ 불교전문 도서관 운영



▶ 30여 년의 전통과 2,000여 동문

- 강의시간 8월 27일 개강 주 3일 출석, 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 초빙교수 월운스님, 권기종(동국대), 정병조(동국대)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빈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우리말불교의식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 ■ 모집 및 전형 (2년제 야간 - 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서류전형
· 불교학 통신 00명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포함)	· 합격자 개별통지
· 불교학 편입 00명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 (원인생애 포함)	·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8월 17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처제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 大圓佛敎大學

학장 해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 팔리경장 한글 번역 불사 회원 모집



최봉수교수

2600년 전 고타마 붓다의 원음이 아름다운 우리말로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숯한 역사의 위기속에서도 존속해 온 소중한 팔리경장을 한글로 번역하는 10년 대 불사가 대중불교운동의 요람인 남산 대원정사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불교 바로 대중불교운동은 부처님의 원음인 팔리경장 번역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불자 모두는 신명을 다해 이번 불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 연찬회원 (월 30,000원)  
팔리 경장 연찬회에 참가하여 우리말로 옮겨진 팔리에 근본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은 강의 TAPES를 우송해 드립니다
- 구독회원 (연 30,000원)  
매달 또는 격월로 발행되는 팔리경장을 보내드립니다.
- 후원회원 (경전 1권당 2,000원)  
군부대, 병원, 학교에 팔리경장을 법보시 할 수 있습니다.
- 송금계좌 (예금주, 한국불교대원회)  
우체국 011791-01-000469 국민은행 098-01-0230-530
- 팔리 경장 연찬회  
일시 : 매주 월요일 11시  
장소 : 대원정사 (02-754-1613)  
강사 : 최봉수 교수

남산도서관  
□ 남산순환도로  
대원정사 □ 하얏트  
해방촌오거리 1